

미국 실업수당 청구: 신규 20 만 6 천 건, 해고 잔잔해 긴축 지속 논거 유지

2026.09.11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한 줄 요약

9월 5일로 끝난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0 만 6 천 건으로 집계돼 해고측과 재취업측 지표가 모두 개선 또는 보합을 기록했고, 이는 노동시장 냉각을 통한 임금·물가 완화 경로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이번 발표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해고 압력이 얼마나 잔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신규 청구건수는 최근 몇 주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움직여 왔고, 이번 주도 그 흐름을 벗어나지 않았다. 신규청구 20 만 6 천 건(4 주 이동평균도 20 만 6 천 건), 계속청구 177 만 4 천 건, 보험 실업률 1.2%까지 이번 발표의 모든 지표가 감소하거나 보합을 나타냈다.

다만 표면 숫자와 실제 신호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번 주 신규청구가 전주 대비 1 천 건 줄었지만, 이는 전주 수치가 상향 수정된 결과로 대부분 설명되며 미수정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보합이다. 4 주 이동평균 역시 2 주 전 대비 소폭 높은 20 만 5 천~20 만 8 천 건 구간 안에 머물러 있어, '해고 감소세가 빨라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전년 동주 대비로 보면 신규청구가 5 만 3 천 건, 계속청구가 15 만 3 천 건 줄어드는 등 레벨 자체는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이며, 이는 수정이나 계절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평가된다.

현재 시장은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 3.3%, 9 월 10 일 발표된 생산자물가지수가 4.8%에서 5.4%로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배하는 국면에 있고, 연방준비제도 정책금리 선물은 12 월 9 일 회의에서 인상 확률을 89%까지 반영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노동시장 견조는 경기 안도 신호가 아니라, 해고가 늘지 않고 재취업도 막히지 않아 임금·서비스물가가 스스로 꺾일 경로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이번 수치는 긴축 지속 논거를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이다. 다만 변화폭 자체는 회의별 금리 확률을 움직일 만한 정보량은 아니며, 채용측 지표(구인·이직 통계, 고용보고서)가 별도로 꺾이지 않는 한 '해고는 잔잔하지만 채용이 얼어붙었다'는 노동시장 약세 서사는 이번 발표와 정면으로 상충한다.

앞으로는 이번 주 신규청구 수치가 다음 주 어느 방향으로 수정되는지, 그리고 뉴욕주에서 나타난 운수·창고, 보건·사회복지, 교육서비스 업종의 해고가 9 월 들어서도 이어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오늘 발표되는 8 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이번 노동 견조와 맞물려 서비스물가 고착 우려를 키우는지도 핵심 관찰 포인트다.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9-10 (이번)	9월 5일로 끝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0만 6천 건으로 발표되며 해고 측 지표와 재취업 측 지표가 모두 역사적 저위권에서 유지됐고, 이는 노동시장 냉각을 통한 임금·물가 완화 경로가 아직 열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하며 현재의 긴축 유지 기조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읽힌다.
2026-09-03	8월 29일로 끝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0만 6천 건으로 늘면서 몇 주간 이어지던 해고 감소 흐름이 멈췄다. 다만 증가폭은 저위권 안에서의 미세한 진동 수준에 그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배하는 현재 시장 국면에서 정책 판단을 흔들 만한 신호는 아니다.
2026-08-27	8월 22일로 끝난 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4천 건 줄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해고 경로에서 노동시장이 느슨해지는 신호는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2026-08-20	8월 15일로 끝난 주간 기준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0만 6천 건으로 전주보다 6천 건 줄었지만, 더 신뢰할 만한 지표인 4주 이동평균은 19만 9,750 건에서 20만 4천 건으로 오히려 4,250 건 올라섰다. 총량 자체는 여전히 전년보다 낮은 저위 구간에 머물러 있으나 방향은 소폭 위쪽으로 꺾여, 이번 주 발표는 '저위 구간 안에서의 완만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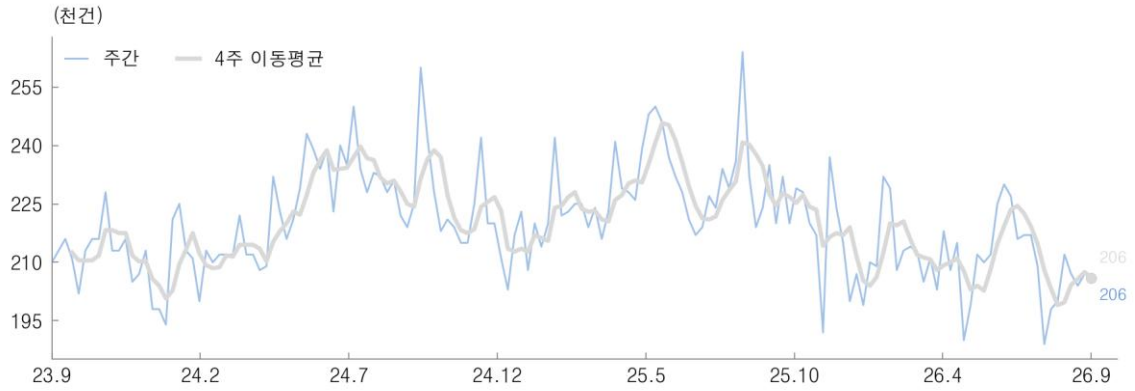
9월 5일 종료 주 실업수당 청구 — 해고·재취업 지표 전반 저위권 유지

지표	수치	전주 대비	맥락
신규청구(계절조정, 9/5 일 종료 주)	20만 6천 건	-1,000 건 (전주 20만 6천 → 20만 7천으로 상향 수정된 결과)	수정 반영 시 사실상 보합, 전년동기 대비 -5만 3천 건
4주 이동평균(신규, 계절조정)	20만 6천 건	-1,500 건 (전주 평균도 20만 7,250 → 20만 7,500 상향 수정)	전년동기 23만 9,250 건보다 3만 3,250 건 낮아 실질 개선
계속청구(계절조정, 8/29 일 종료 주)	177만 4천 건	-1,000 건 (전주 177만 9천 → 177만 5천으로 하향 수정)	전년동기 192만 7천 건 대비 15만 3천 건 감소
계속청구 4주 이동평균(계절조정)	177만 9천 건	-1,750 건	전년동기 194만 750 건 대비 큰 폭 감소
보험 실업률(계절조정, 8/29 일 종료 주)	1.2%	0.0%p (보합)	전년동기 1.3%에서 소폭 하락
신규청구(미조정, 9/5 일 종료 주)	17만 6,567 건	+5,164 건 (+3.0%)	계절 기대치(+3.4%) 밑돌아 조정 후에는 오히려 감소
뉴욕주 신규청구 증감(8/29 일 종료 주)	전국 최대 증가 +4,338 건	-	운수·창고,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업종 해고가 주요인으로 보고됨
연방공무원 실업급여 신규청구(UCFE, 8/29 일 종료 주)	388 건	+51 건	전년동기 527 건보다 낮아 연방 감원 확대 서사 뒷받침 약함

핵심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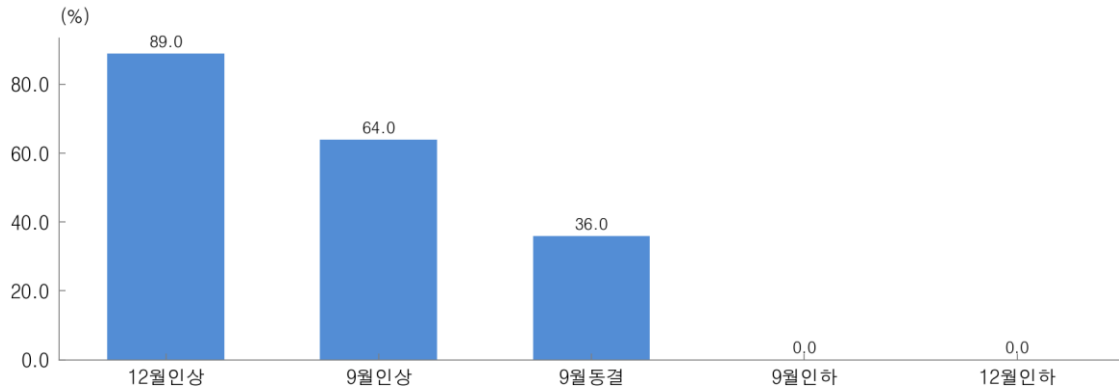
지표	값
4주 이동평균(건)	206000
전주대비(건)	-1000
계속 실업청구(건)	1774000
신규 실업청구(건)	20600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주간) 3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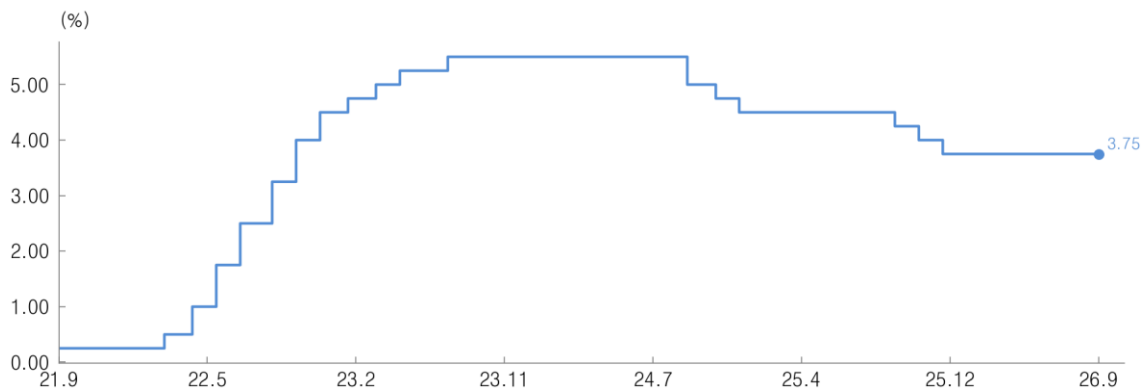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9 월·12 월 FOMC 회의별 시장 반영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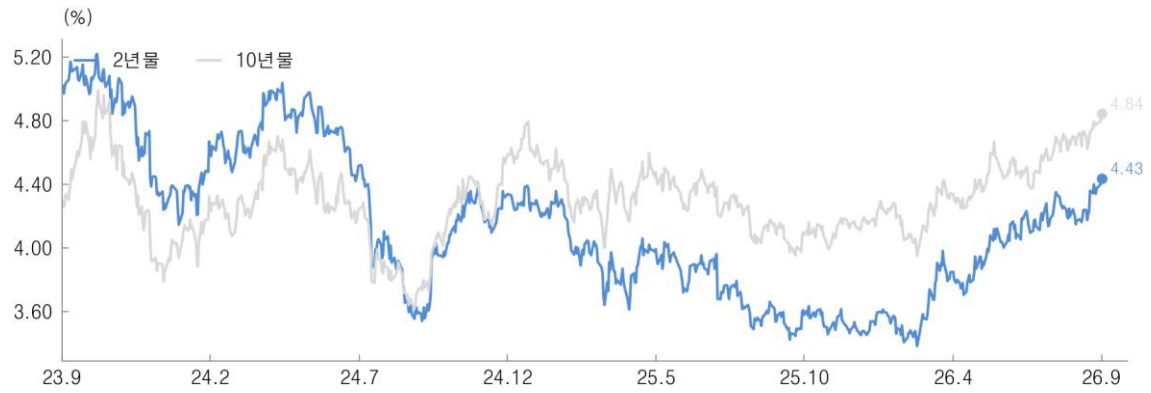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정책금리(연방기금 목표 상단) 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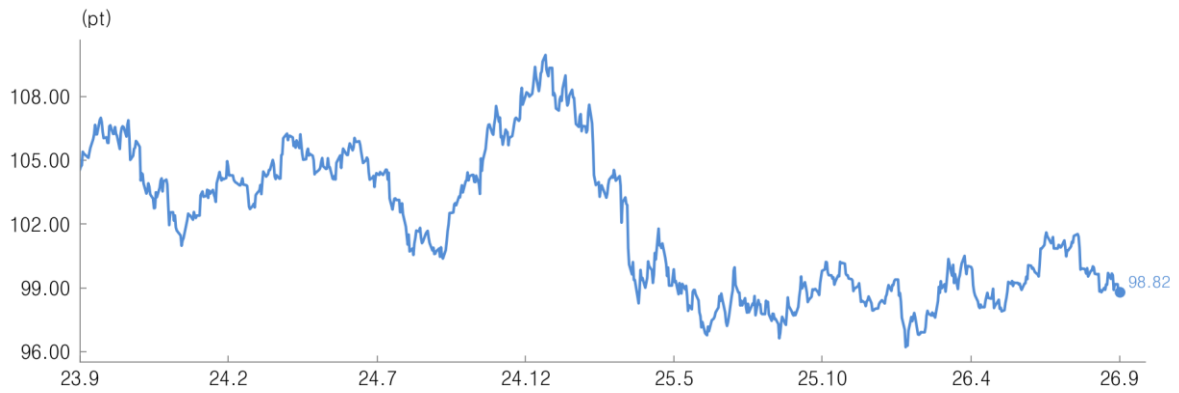
자료: CEIC(2026-09-10 기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금리 (2년·10년)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지수(DXY) 3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